

입산통제 무시 막무가내 겨울산행 '위험'

무등산 설경보러 7천명 몰려...등반 막아도 100명 강행

화순 이서적벽 찾은 등산객 4명 조난...9시간만에 구조

“위험합니다. 입산통제됐어요.”, “대전서 무등산 설경 한 번 보자고 새벽밥 먹고 왔는데 눈 좀 왔다고 막는 겁니까.”

입산통제에도 막무가내로 산행을 감행하는 탐방객들이 있어 자칫 대형참사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서운 한파와 함께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9일 무등산국립공원 곳곳에선 탐방객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간 실랑이가 온종일 펼쳐졌다. 탐방객 안전을 위해 입산을 가로막는 공단 직원과 무등산 설경을 한 발이라도 가까이서 보려던 탐방객들의 다툼이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경우 전날 오전 10시부터 법정 탐방로 63개 전 구간의 출입이 통제됐지만 탐방객들은 좁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공단 직원들의 협조요청에도 증심사방향 입구를 통해 무등산에 오른 탐방객 숫자만 7000여명. 특히 외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온 산악회 회원 등 100여명은 공단 직원들의 통제를 뿌리치고 장불채 인근까지 산행을 감행하거나 법정 탐방로를 이탈해 공단 직원들을 긴장시켰다. 공단 직원 50여명은 종일 탐방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주요 탐방로 곳곳에 배치돼 탐방객 등의 안전을 살펴 다행히 인명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날 화순에서는 한 무리의 등산객이 이서적벽에 올랐다가 조난당했다.

수도권에서 온 이모(여·64세) 등 50~60대 등산객 4명은 이날 종교의식을 치르러 이서적벽을 찾았다가 폭설로 고립됐다. 눈보라를 뚫고 이서적벽 정상부에 있었던 ‘한산사’라는 옛 절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기도를 올리고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합박눈이 쏟아지고 추위와 기상을 부러면서 하산하던 중 길을 잃은 것이다.

전날부터 전국에 한파와 눈이 몰아치며

다 이날 하루 동안 화순에 7cm의 눈이 내리고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맴돌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산통제 조치가 없더라도 애초부터 무리한 산행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다행히 이씨 등은 이날 오후 7시에 119를 통해 조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군인, 경찰의 합동 구조로 9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자칫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산행이었다.

구조당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건강한 사람도 산에 올랐다가 저체온증에 걸려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만큼 무리한 산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화순 사고의 경우 조난자들이 119와 계속 통화하면서 주요 지형지물을 알고 내려와 별다른 부상 없이 하산한 것으로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나라사랑 청소년 비전찾기 캠프'

광주시교육청은 20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지역 고등학생과 안전지도교사 등 117명을 대상으로 '2016 나라사랑 청소년 비전찾기 체험캠프'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번 캠프 기간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올바른 국가의식을 함양하고 꿈과 끼를 키우며 비전을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첫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

군 제1전투비행단과 고 서정우 하사 흉상을 찾아 참배한 뒤 이튿날 포스코 광양제철소·GS칼텍스 여수공장, 여수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등을 둘러본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49, 달출몰 15:22, 달몰림 04:44

추위 계속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5/2	보성	구름많음	-5/2
목포	구름많음	-3/1	순천	구름많음	-2/3
여수	구름많음	-3/2	영광	구름많음	-7/1
나주	구름많음	-7/3	진도	구름많음	-2/1
완도	구름많음	-3/1	전주	구름많음	-9/1
구례	구름많음	-6/1	군산	구름많음	-9/1
강진	구름많음	-4/2	남원	구름많음	-1/1
해남	구름많음	-4/2	속산도	구름많음	0/2
장성	구름많음	-7/2			

◇바다 날씨

방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	북~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2.5	북서	북~북 1.5~2.5
남해 서부	북서~북 0.5~1.5	북서	북~북 0.5~1.5
남해 서부	북서~북 1.5~2.5	북서	북~북 1.5~2.5
남해 서부	북서~북 1.0~2.0	북서	북~북 1.5~2.5

◇생황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높음
뇌졸중	높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2:17	04:53
	00:00	17:45
여수	밀물	썰물
	07:25	00:43
	19:35	13:34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	☁	☁	☁	☀	☀	☁
-5/3	-4/1	-9/-3	-7/-1	-5/3	-3/5	0/6



2016년 광주일보신춘문예 및 광일문학상 시상식이 20일 오후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광일문학상 수상자 안영옥씨, 소설 당선자 김해숙씨,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동화 당선자 황성진씨, 시 당선자 진혜진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광일문학상 시상

단편소설 김해숙·시 진혜진·동화 황성진씨 수상

2016년 광주일보신춘문예 및 제11회 광주일보문학상(이하 광일문학상) 시상식이 20일 오후 4시 광주일보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수상자와 가족, 광일문학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광주일보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작품 모음집 '급남로 가는 길' 제19집 출판 기념식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17면>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6년 광주일보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김해숙(40) 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진혜진(54) 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황성진(28) 씨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광일문학상 열한 번째 주인공 안영옥(58) 씨에게도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

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광일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의 모인인 광일문학회(회장 채희운) 회원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광주일보는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63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신춘문예를 지속해왔다. 호남 예술제 60년, 3·1절 마라톤 대회 50년과 함께 광주일보의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다. 앞으로도 광주일보와 자매지 '예향'은 여러분의 창작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 성요셉여고 마지막 졸업식

울 폐교...52년간 1만750명 졸업

50년동안 전남 서남부권 여성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던 강진 성요셉여고 울 폐교를 앞두고 20일 마지막 83명의 졸업식을 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가톨릭 수녀회가 설립한 성요셉여고는 1962년 성요셉금릉여자 가정고등학교로 개교, 지금까지 모두 52차례에 걸쳐 1만7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때 전체 학급 수가 27개반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2013년 1학년 학급 수가 3개반으로 줄었다. 급기야 학교측은 학생 수 감소에 국·공립학교 위주의 지원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2013년 5월 폐교를 신청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학교측은 폐교를 신청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졸업생·학부모들은 학교 관련 영수증을 보며 지난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학생들은 마지막 교가와 졸업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장단체 교육감은 성요셉여고 교직원들을 공립학교로 수용하고 충실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기려 감사패를 받았다. 성요셉여고 이후 강진고가 2017년 9월 개교, 지역 거점고로 지역인재 육성을 담당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

폭설·강풍...24일 시베리아 추위 온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주의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안 지방에서는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도 예상된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3~25일 광주·전남지역은 시베리아에서 남하하는 차가운 공기에 의해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4일에는 울거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청년들 오늘부터 징병검사

올해로 19세가 되는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은 21일부터 징병검사를 받는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장현서)은 올해 징병검사를 2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7년(19세)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해보다 500명 줄어든 2만 4100여명이다. 전국적으로는 35만1000여명에 이른다.

대상자는 지정된 날짜에 광주시 학동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함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비고
인문	신학과	5	1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3학년)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4	2	
예능	음악학과	7		
	실용음악학과	4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라리넷, 트롬본,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월) ~ 16(화)

•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2016. 2. 19(금) 오전 10시
		목회학과(D.Min.)	○	
		신학과(Th.M.)	○	
신학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6. 2. 19(금) 오후 3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6. 2. 19(금) 오전 10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6. 2. 19(금)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월) ~ 16(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일 : 2016. 2. 19(금) 오전 10시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